

2022.11.30(수)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2-11-30 오전 3:22

수정한 날짜: 2022-11-30 오전 5:09

2022.11.30(수) 증권사리포트

CJ

거리두기 해제 및 리오프닝 수혜 가속화

[\[출처\] 하나증권 최정욱 애널리스트](#)

그룹 연결 매출액 11조원 육박. 완전한 실적 회복 추세 지속

CJ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0,000원을 유지. CJ의 3분기 매출액은 10.9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분기 연결매출이 11조원에 육박. CJ제일제당의 매출액은 YoY 21.7% 증가하고 곡물가 상승에도 제품가격 인상 및 비용효율화로 영업이익 또한 YoY 20.0% 증가했고, CJ CGV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적이 회복되며 매출액이 YoY 150% 증가,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후 최초로 분기 흑자전환했음.

CJ올리브영 또한 매출액이 YoY 33.2%, 순이익은 59.3% 급증해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음. 반면 CJ푸드빌은 외식업황 회복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원가부담 증가로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CJ ENM도 커머스부문 비용 증가와 미디어부문 TVING 제작비 증가로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은 감소했음. CJ CGV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및 CJ올리브영의 가파른 실적 개선 등으로 CJ 주가가 최근 KOSPI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실질 NAV 5.8조원 대비 현 시가총액 2.3조원은 아직도 현저한 저평가로 판단

CGV는 실적 턴어라운드와 더불어 재무구조 개선 노력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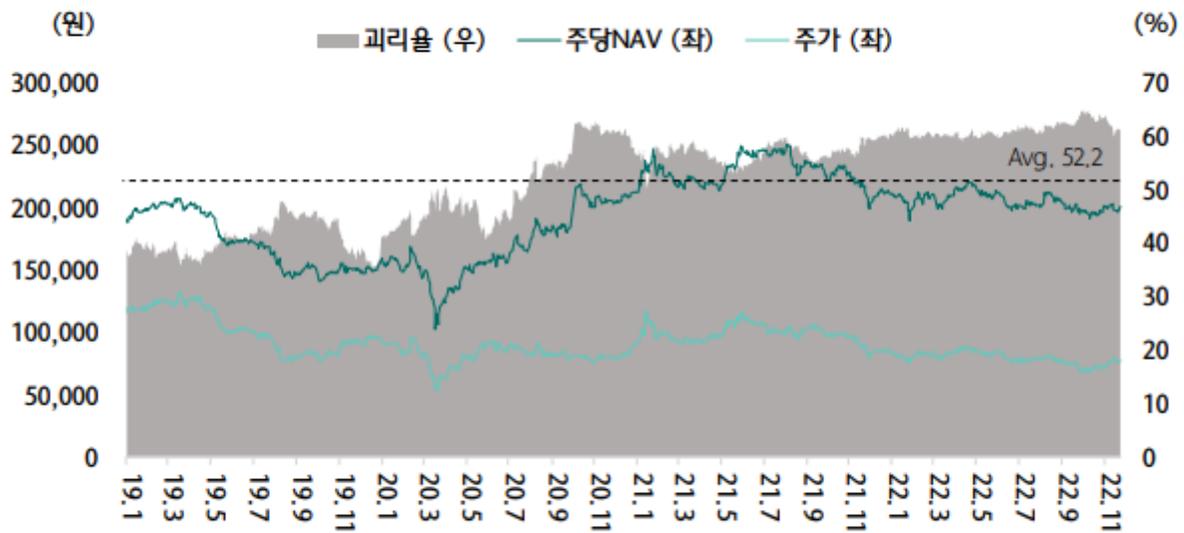
CJ의 CJ CGV에 대한 지분율은 2분기말 39.96%에서 3분기말 48.52%로 큰폭 증가했는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CJ가 1,500억원을 참여했기 때문. 이는 CJ CGV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로 CGV에게 대여해준 신증자본대출 2,000억원 중 콜옵션 행사로 조기 상환된 1,500억원을 유상증자에 참여. 신증자본대출은 올해말부터 이자율이 2.0%p 추가 가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CGV는 금융비용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줄어드는 동시에 자본은 증가되는 효과 발생. CGV의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추가 출자 등의 계획은 없는 상황. 최근 CGV는 3분기 실적발표를 전후로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CJ의 전체 NAV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에 달해 자회사 중 제일제당, 올리브영, ENM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분율이 추가 확대된만큼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전망. CGV는 유상증자 외에도 4,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향후 CJ의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은 있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

CJ올리브영의 O2O 연계 성장 전략. 온라인 매출 비중 정체에 대한 우려는 과도

CJ올리브영은 3분기에도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증하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혜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경쟁사였던 락라블라와 룩스가 국내 H&B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CJ올리브영의 점포 수는 3분기말 1,289개로 전년말 대비 24개 증가했음(연초 계획은 5개 증가 목표). CJ올리브영은 단순히 오프라인 점포 수 확충을 통한 점유율 확대보다는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통한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확보한 지역별 소비패턴 등의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활용해 O2O 채널을 고도화시키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이 작년 3분기 이후 24%대에서 정체되고 있지만 이는 온·오프라인 동시 성장 전략에 따른 결과로서 매출 비중 정체와 관련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에 대해 관심이 큰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 및 확장성 저하 우려 때문인데 CJ올리브영의 점포들은 대형 플래그십 형태가 아닌 대부분 14평 내외의 소형 매장들로서 자체 매출 성장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내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물류 거점의 역할로도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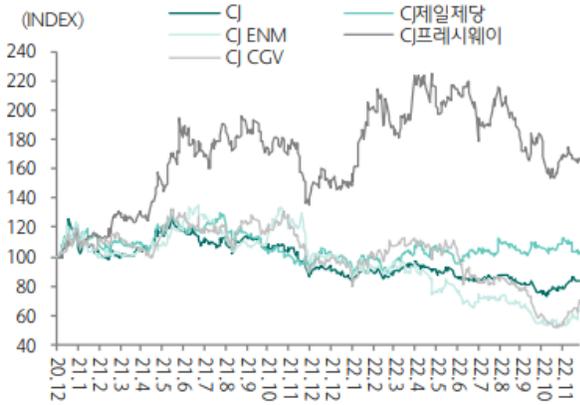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십억원	31,999.1	34,484.0	41,261.5	43,487.9	45,458.5
영업이익	십억원	1,390.3	1,881.8	2,342.6	2,726.0	2,881.0
세전이익	십억원	513.7	1,300.8	1,349.0	1,970.2	2,062.2
지배순이익	십억원	86.7	275.0	323.5	425.9	445.8
EPS	원	2,430	7,710	9,070	11,941	12,500
증감율	%	(67.56)	217.28	17.64	31.65	4.68
PER	배	37.90	10.82	8.51	6.47	6.18
PBR	배	0.69	0.57	0.48	0.45	0.43
EV/EBITDA	배	6.96	6.31	5.53	4.89	4.57
ROE	%	1.89	5.66	6.05	7.35	7.26
BPS	원	134,358	146,205	161,799	171,380	181,239
DPS	원	2,000	2,300	2,500	2,800	3,000

그림 1. CJ 실질 NAV와 주가 및 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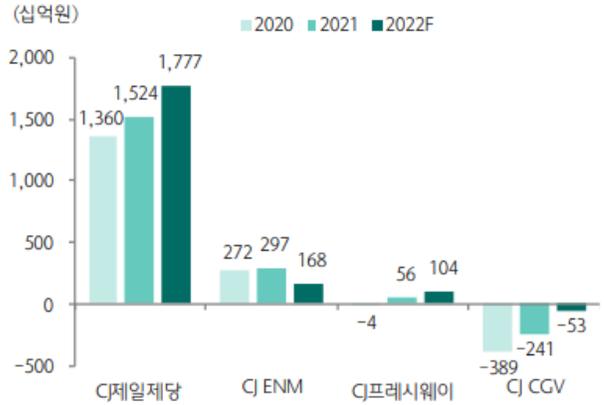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그림 2. CJ 및 상장 계열사 2021년초 대비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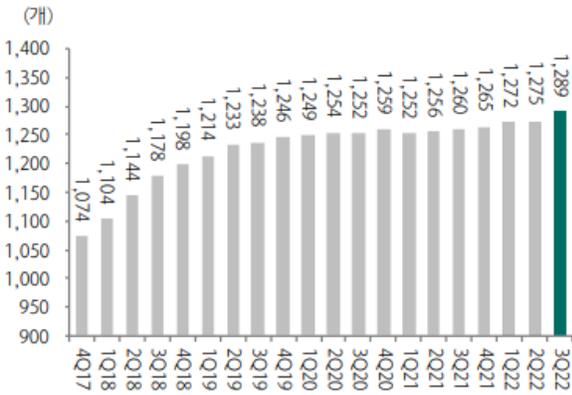
주: 2020년 12월 30일 주가를 100으로 한 상대지수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그림 3. CJ 상장 계열사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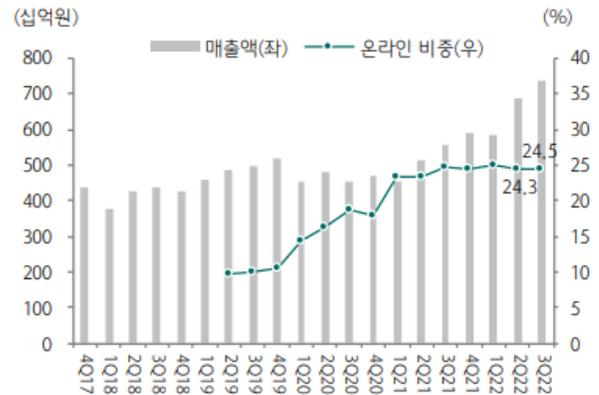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그림 4. CJ올리브영 점포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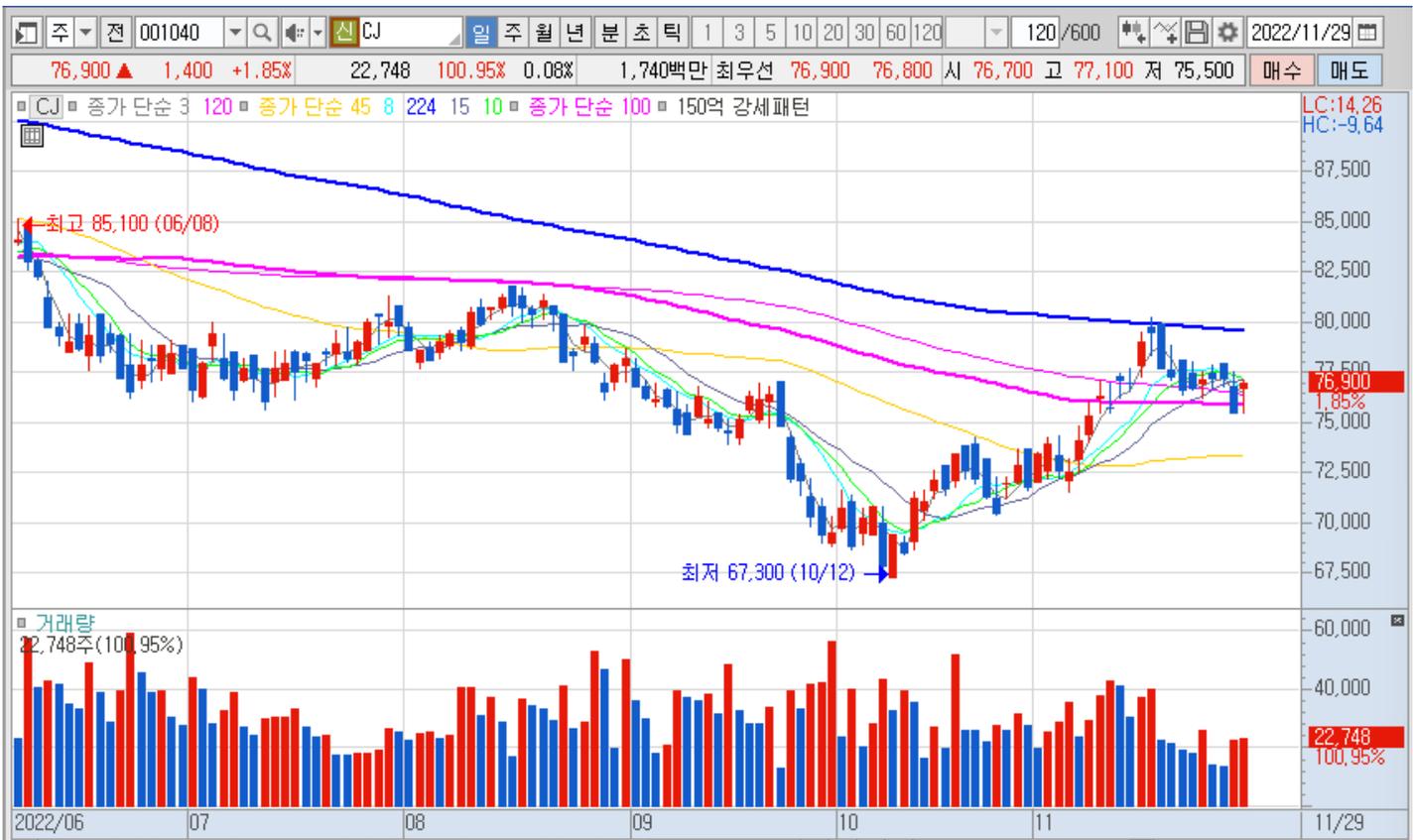


자료: CJ, 하나증권

그림 5. CJ올리브영 분기별 매출액 및 온라인 비중 추이



주: 올리브영의 온라인 매출액 비중은 2Q19부터 공시
 자료: CJ, 하나증권



강원랜드

영업 정상화에 따른 뚜렷한 실적 개선

[\[출처\] IBK투자증권 이환욱 애널리스트](#)

3Q22 영업 정상화에 따른 실적 개선

3Q22 연결 기준 매출액은 3,976억원(+62.1% yoy), 영업이익은 1,187억원(+389.1% yoy)으로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하는 실적 달성. 영업 환경 정상화에 따른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기록함. 인당 드롭액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방문객 수 전분기 대비 33.8% 크게 증가하며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함.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Casino 86.4%, Non-Casino 13.6%로 구성됨.

코로나 이전 대비 총 방문객 수 85% 수준까지 회복

3Q22 총 방문객 수는 약 66만명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3Q19 대비 약 85% 수준까지 회복됨. 지난 4월 18일 영업시간(18시간/일 → 20시간/일)이 정상화되며 일 평균 방문객 수 빠르게 회복되었고, 동시 체류 인원 제한도 해제된 영향이 컸음. 국내와 해외 방문객 수는 각각 65만 5천명, 5천명 수준으로 내국인 회복세가 더욱 두드러졌으며, 인당 드롭액이 2.5백만원 수준으로 3Q19대비 0.3백만원 증가해 매출액 회복세는 더욱 가팔랐음. 홀드율은 3Q19와 동일한 22.7%, 총 드롭액은 1조 6,715억원을 각각 기록함.

4Q22는 계절적 비수기로 Non-Casino(골프, 워트월드 등) 부분 매출 공백 불가피하나, 스키 시즌 및 Casino 부분의 꾸준한 방문객 수 회복에 따른 YOY 실적 개선세 이어질 것. 매출액 3,837억원(+58.5% yoy), 영업이익 721억원(흑자전환 yoy), 영업이익률 18.8%를 각각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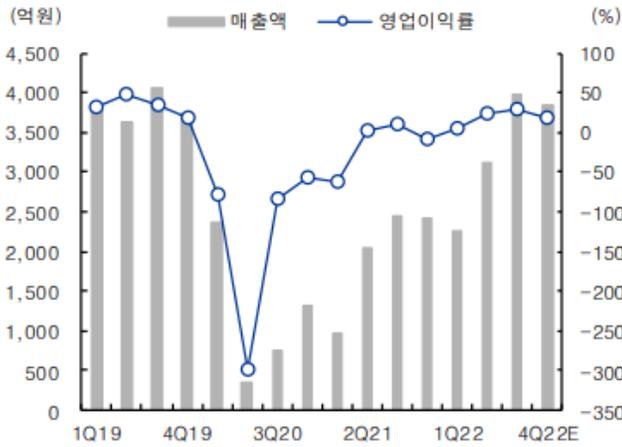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1,500원 유지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인데, 영업 정상화 및 확대된 테이블(180대→200대) 운영이 가능해 졌고, 내국인 방문객 수 회복에 더해 외국인 수요도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며, Non-Casino 부문 역시 동반해서 실적 회복 이어질 것.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1,500원을 유지함.

(단위:십억원,배)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479	788	1,320	1,557	1,651
영업이익	-432	-53	271	452	470
세전이익	-405	-14	247	480	502
지배주주순이익	-276	-11	183	354	372
EPS(원)	-1,289	-49	856	1,656	1,740
증가율(%)	-182.4	-96.2	-1,832.5	93.5	5.1
영업이익률(%)	-90.2	-6.7	20.5	29.0	28.5
순이익률(%)	-57.6	-1.4	13.9	22.7	22.5
ROE(%)	-7.9	-0.3	5.5	10.0	9.9
PER	-18.2	-486.9	28.2	14.6	13.9
PBR	1.5	1.6	1.5	1.4	1.3
EV/EBITDA	-11.4	144.6	10.5	6.4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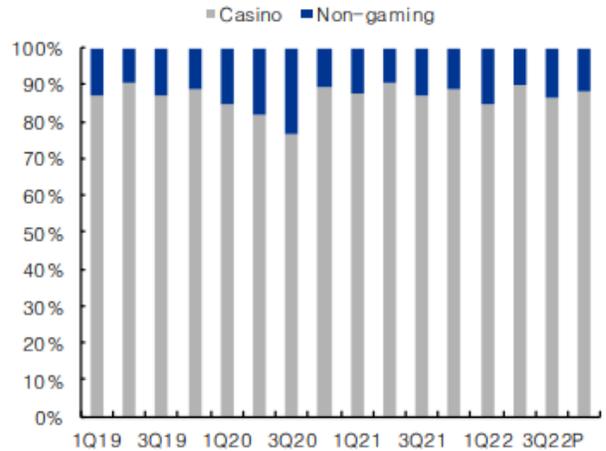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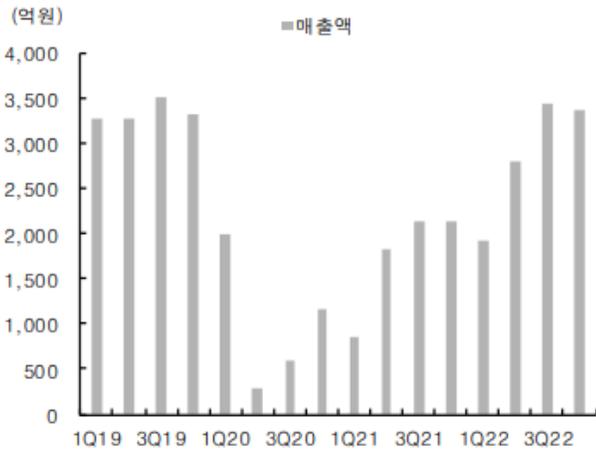
자료: 강원랜드, IBK투자증권

그림 2. 카지노 & 비 카지노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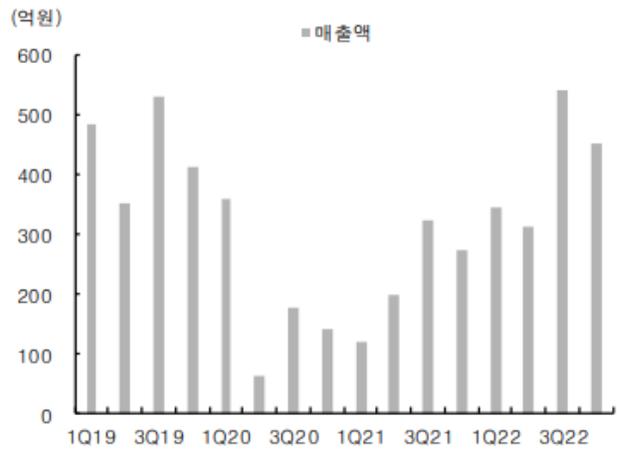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IBK투자증권

그림 3. 분기별 카지노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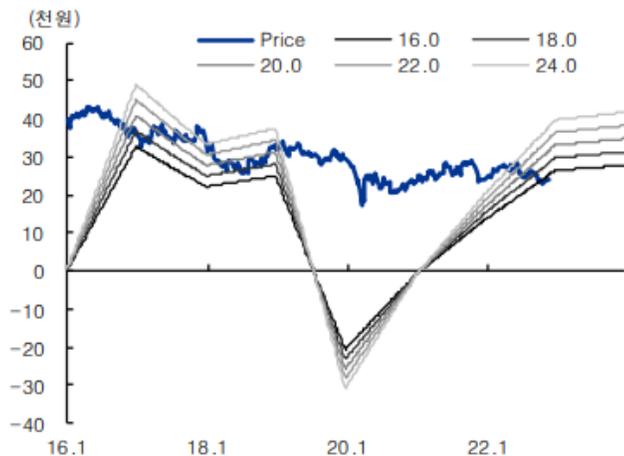
자료: 강원랜드, IBK투자증권

그림 4. 분기별 비카지노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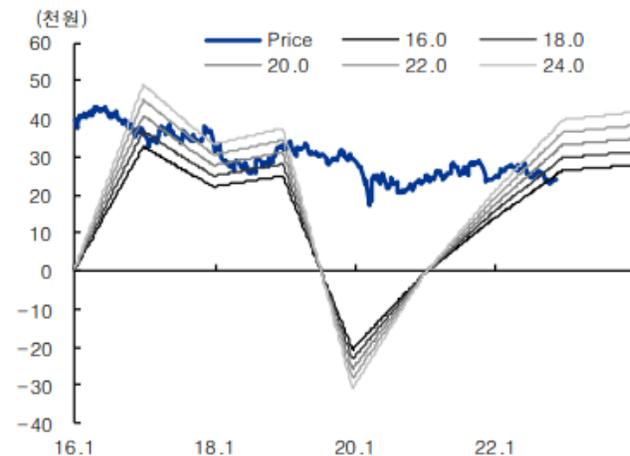
자료: 강원랜드, IBK투자증권

그림 7. 강원랜드 12MF PE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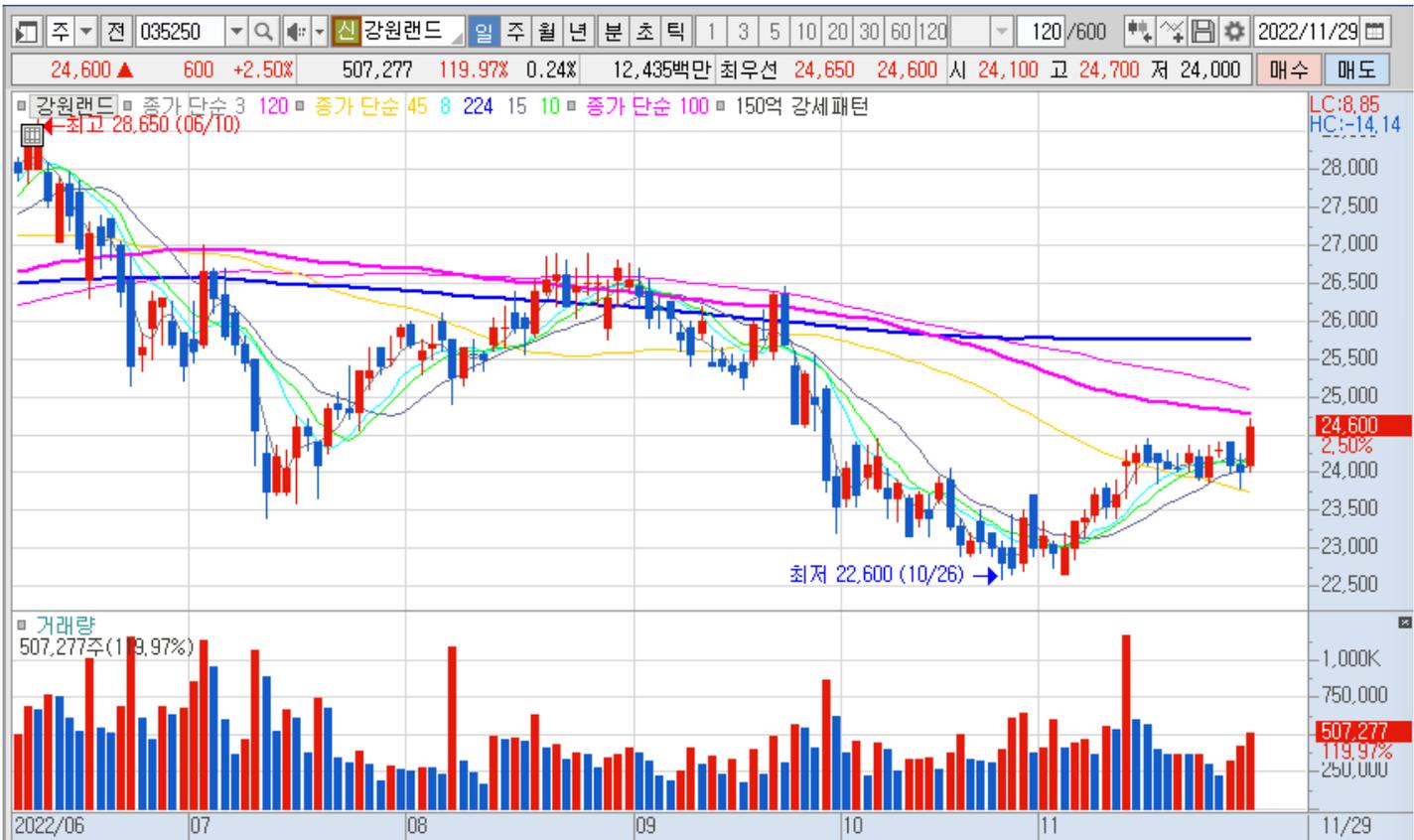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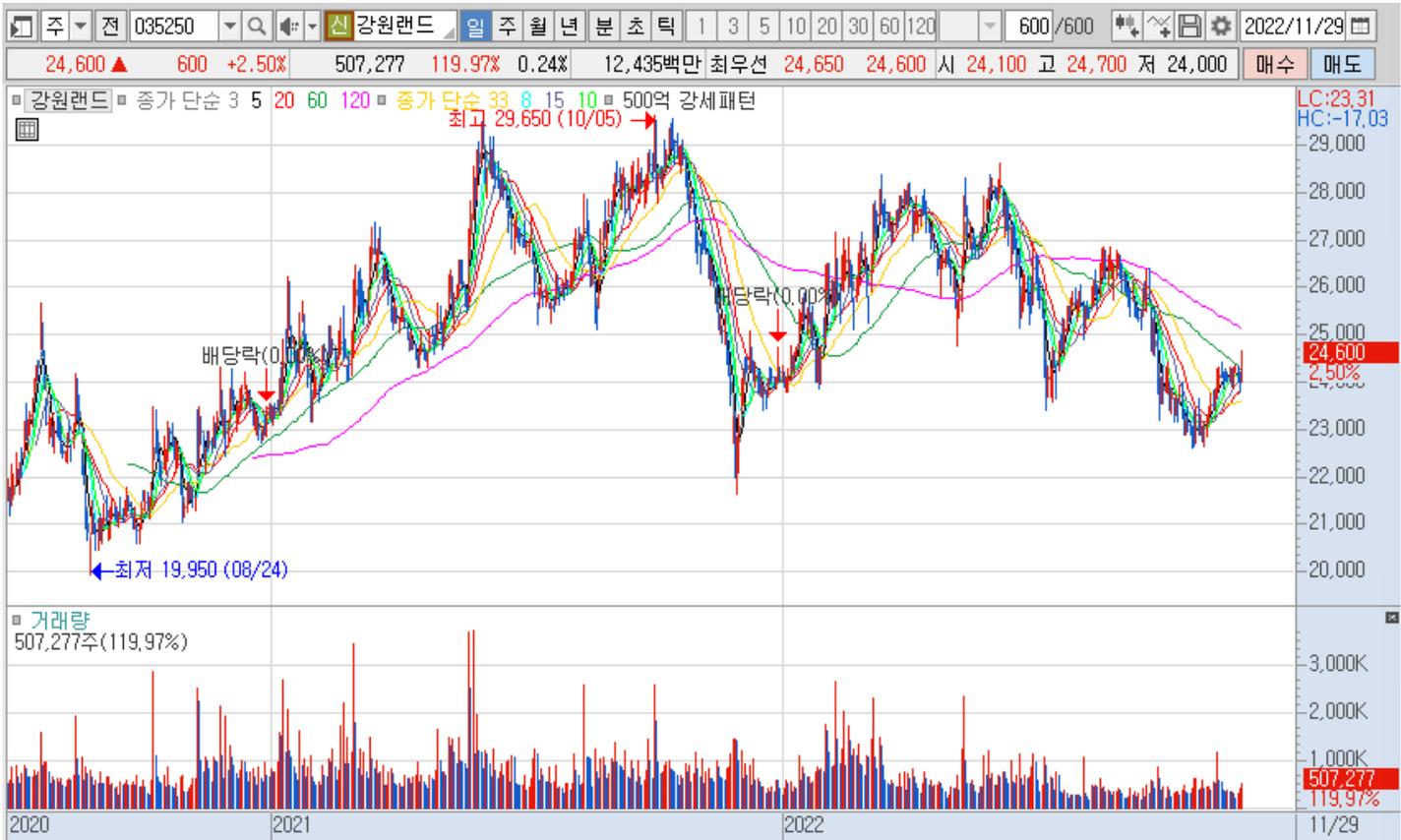


자료: IBK투자증권

그림 8. 강원랜드 12MF PBR 밴드



자료: IBK투자증권



명신산업

글로벌 EV 시장의 성장을 한 몸에

[\[출처\]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애널리스트](#)

회사소개

1982년 설립되어 핫스탬핑(Hot Stamping) 공법으로 경량화한 제품을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2 차 협력사. 주요 연결 종속법인 심원 미국/심원 북미(지분 100% 보유)를 통해 미국 EV 업체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 심원 남경/심원 상숙/심원 상해(지분 100% 보유)를 통해 중국 EV 업체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전기차 시장 고속 성장에 따라 초경량화/초고강도 차체 부품의 필요성 증대되어 동사의 제품 수요 동반 상승 중.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현대차/기아 외 글로벌 EV 업체향 매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22년 3분기 현대차/기아 31%, 글로벌 69%), 올해부터 가동 시작된 미국 현지 신규 생산라인을 통해 현지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글로벌 EV 시장의 성장을 한 몸에

동사의 매출 비중은 현대차/기아 31%, 글로벌 EV 업체 69%로 구성, 북미 선도 EV 메이커 비중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EV 시장의 성장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음. 원자재 가격 상승은 유상사급 등을 통해 헤지가 가능하고 미국 현지 핫스탬핑 생산라인 신규 가동됨에 따라 운송비 역시 절감됨. 동사의 3 분기 실적은 매출액 4,140 억원(+53.5%yoy), 영업이익 363 억원(+58.2%yoy, OPM 8.8%)을 기록해 지난 상반기 대비 대폭 개선된 모습임

2023 년에도 고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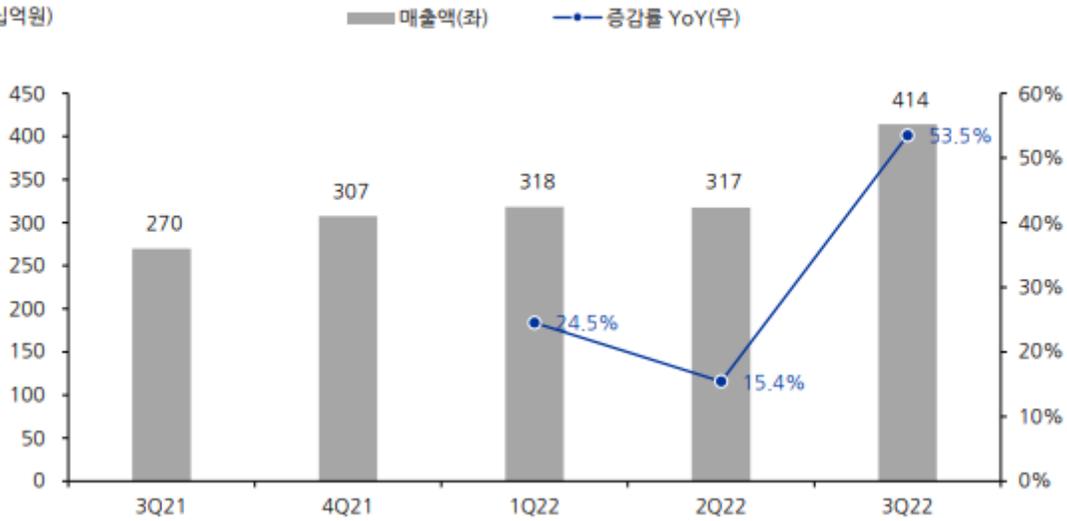
2023 년에도 글로벌 EV 시장의 초과 성장 지속될 전망. 원자재 가격과 운임비 등 각종 비용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의 추가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동사는 2023년 매출액 1.63조원(+11.4%yoy), 영업이익 1,260억원(+11.6%yoy)을 기록할 전망.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6,000 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함. 목표주가는 2023 년 EPS 1,961 원에 P/E 13 배(글로벌 피어 P/E 중단 적용)를 적용함

결산기(12월)	2019A	2020A	2021A	2022F	2023F
매출액(십억원)	776	809	1,108	1,468	1,635
영업이익(십억원)	60	66	56	113	126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48	-73	58	136	134
지배이익(십억원)	34	-89	45	103	102
EPS(원)	1,419	-2,177	864	1,968	1,941
증감률(%)	883.5	적전	흑전	127.8	-1.4
PER(배)	na	na	34.8	8.9	9.0
ROE(%)	53.8	-67.4	18.8	26.5	20.7
PBR(배)	na	10.9	5.3	2.4	1.9
EV/EBITDA(배)	1.5	22.2	20.9	7.4	6.0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3. 최근 5분기 매출/매출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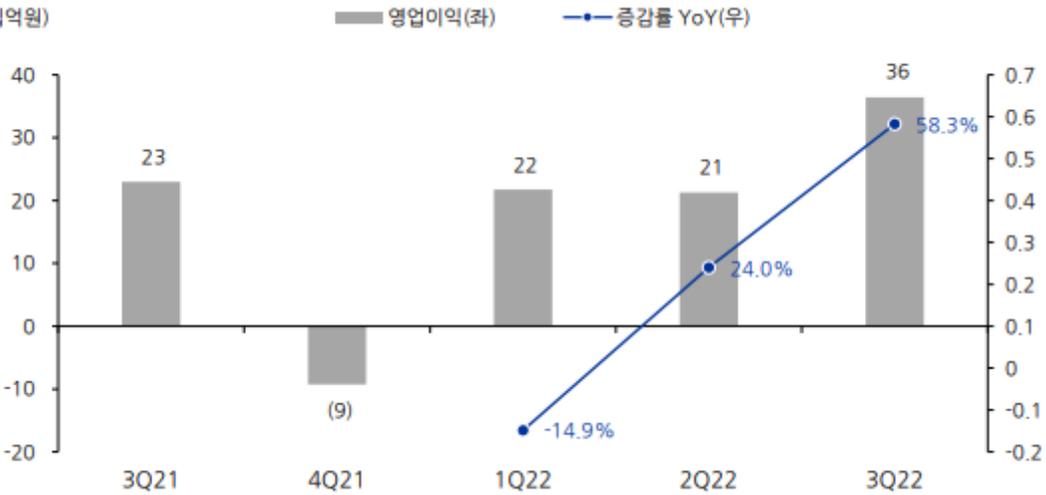
(십억원)



자료: 명신산업, 유진투자증권

도표4. 최근 5분기 영업이익/영업이익률 추이

(십억원)



자료: 명신산업, 유진투자증권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지역 다변화와 엔진 고성장

[\[출처\] IBK투자증권 이상현 애널리스트](#)

하반기 증가세 반전

최근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1,769억원(+21% yoy), 영업이익 747억원(+122% yoy), 영업이익률 6.3%(+2.8%p yoy)를 기록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부품 수급과 물류 지연으로 지연되었던 수요가 반영되고 엔진사업의 고수익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4분기는 매출액 1조1,990억원(+16% yoy), 영업이익 687억원(+481% yoy), 영업이익률 5.7%(+4.6%p yoy) 수준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은 부품 수급과 물류 차질 개선이 이어지며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위로금과 충당금 설정 등으로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3년 시장 침체 우려는 지역 다변화와 엔진을 통해 돌파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신흥/선진, 엔진 등으로 매출 구성이 다변화되고 있어 2023년 매출과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비 부담이 있으나 2022년 꾸준히 5~6% 판가인상(환율감안시 10% 이상 효과)을 해왔고 제품믹스도 개선되어 충분히 상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엔진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K2 전차 엔진 납품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고수익 엔진의 고성장 기초가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000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000원으로 상향한다(기존 중립, 7,000원). 중국의존도가 낮아지며 하반기 들어 증익으로 전환되었고, 2023년에도 신흥국의 자원개발 수요, 선진시장의 인프라 투자 수요, 고수익 엔진의 고성장 등을 통해 양호한 매출과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단위:십억원,배)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3,988	4,594	4,718	4,940	5,293
영업이익	264	265	335	359	402
세전이익	113	174	320	358	405
지배주주순이익	149	462	235	251	283
EPS(원)	535	2,287	1,189	1,267	1,433
증가율(%)	-38.6	327.1	-48.0	6.6	13.1
영업이익률(%)	6.6	5.8	7.1	7.3	7.6
순이익률(%)	7.1	12.4	5.0	5.1	5.3
ROE(%)	6.5	24.6	15.6	14.2	13.9
PER	10.5	3.1	7.0	6.6	5.8
PBR	0.7	1.0	1.0	0.9	0.8
EV/EBITDA	11.6	5.3	4.8	5.0	4.0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하이트진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한 해

[\[출처\] NH투자증권 주영훈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6,000원 제시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은 주류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 지배력. 특히, 동사는 유흥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 리오프닝과 더불어 가격 인상 효과가 더해지며 빠른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2023년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조7,302억원(+8% y-y), 2,352억원(+22% y-y)으로 추정

맥주, 소주 부문의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각각 +4%, +9%로 전망. 리오프닝 및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던 2022년 대비 성장률 자체는 다소 둔화되어 보일 수 있음. 다만, 2023년의 핵심은 수익성 개선에 있다고 판단

2022년 하반기 동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높은 매출 증가세에 비해 이익 개선폭은 시장 기대치 대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예상치 못했던 일회성 비용(인건비, 물류비 등) 관련 이슈들이 반영되었기 때문. 다만, 향후 이목표주가는 2023년 지배주주순이익 추정치에 Target PER 18.0배를 적용하여 산정. Target PER은 글로벌 주류 업체 5개사(Asahi, Heineken 등)의 평균 PER에 해당.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38%러한 일회성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이 경우 2023년동사의 영업이익률은 +0.6%p y-y 상승한 8.6%까지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 수익성 개선이 확인될 경우 동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2021	2022E	2023F	2024F
매출액	2,203	2,531	2,730	2,942
증감률	-2.4	14.9	7.9	7.8
영업이익	174	193	235	283
증감률	-12.3	11.1	21.6	20.2
영업이익률	7.9	7.6	8.6	9.6
(지배지분)순이익	72	113	142	175
EPS	1,009	1,591	2,010	2,488
증감률	-17.5	57.7	26.3	23.7
PER	29.9	16.3	12.9	10.5
PBR	2.0	1.6	1.5	1.4
EV/EBITDA	7.5	6.0	5.1	4.2
ROE	6.6	10.0	11.9	13.5
부채비율	232.2	225.0	213.7	199.0
순차입금	245	182	9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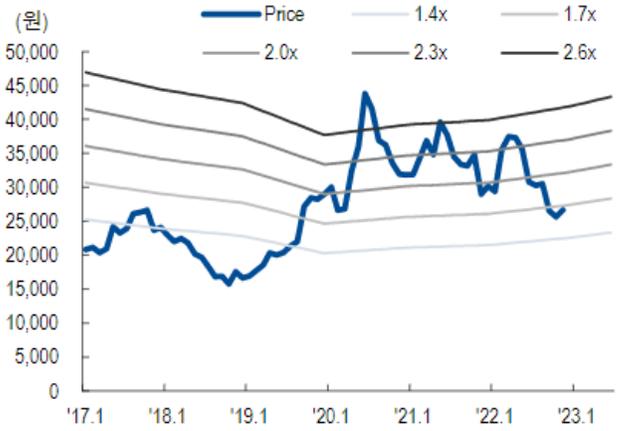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하이트진로 12M Forward PER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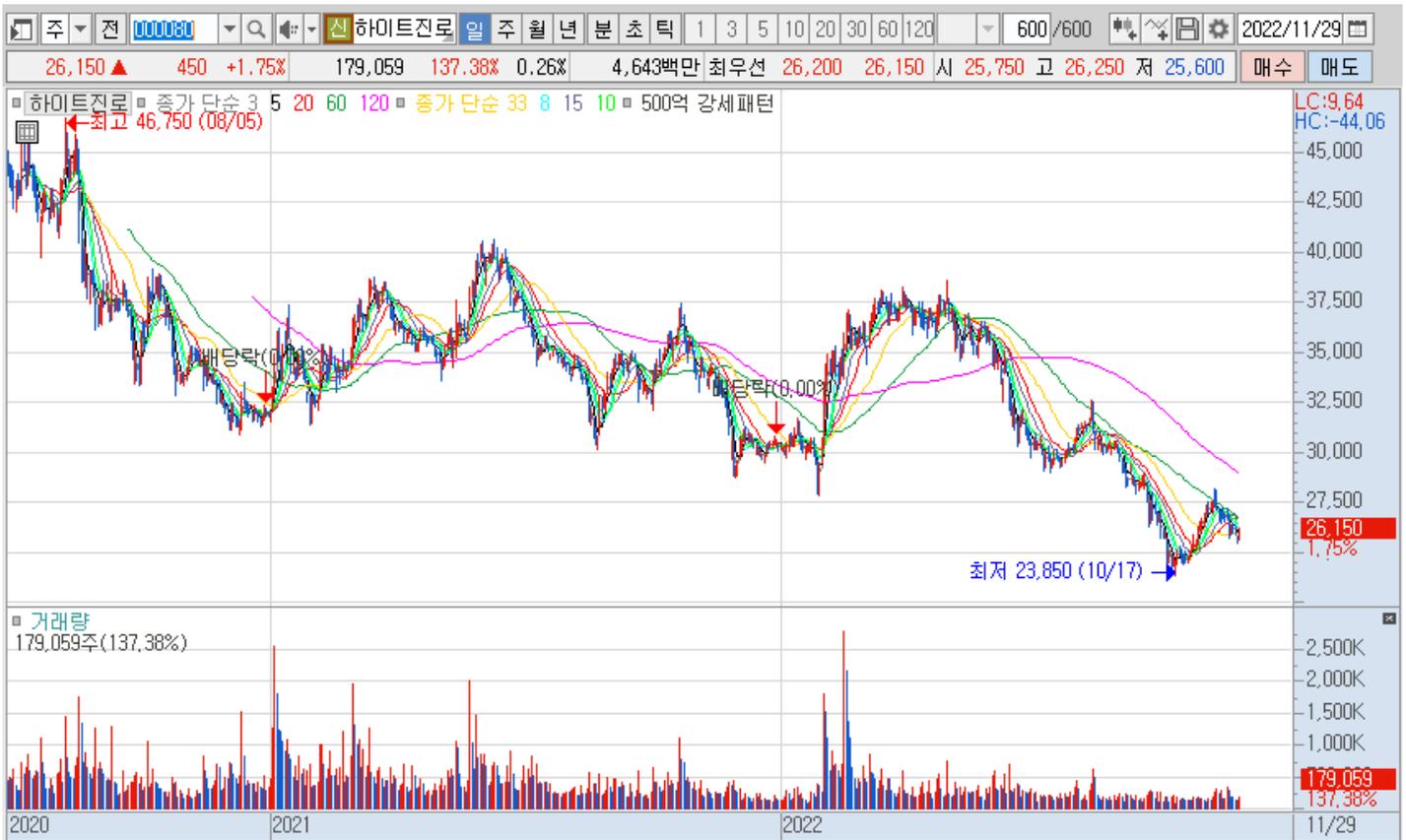


자료: 하이트진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하이트진로 12M Trailing PBR Band



자료: 하이트진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에스이씨
 배터리 부품업체 중 가장 저평가
[\[출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

Investment Point

미국 진출 가시화: 신흥에스이씨는 고객사 요청시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 IRA로 배터리 셀 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 밸류체인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동사도 고객사 공장 근처에 입지할 가능성 높아짐. 미국 공장은 2025년 이후부터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전에는 헝가리 공장에서 공급할 것

헝가리, 말레이시아 공장 성장 지속: 올 해 동사는 헝가리 공장의 Cap Ass'y 생산능력을 월 2백만개 증설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추가로 3백만개를 더 늘림. 말레이시아 원통형 CID도 올 해 월 2천만개, 내년에도 2천만개를 추가 증설할 계획임. 특히 원통형 배터리의 글로벌 수요가 견조하고, 4680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태여서 향후 동사 말레이시아 공장의 이익 레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최근 실적 및 이슈

고객사 재고조정, 고회율로 예상보다 낮은 이익 시현: 하반기 이익률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높은 원달러 환율로 예상보다 낮은 이익률 기록. 주원재료인 알루미늄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국내법인에서 구매한 후 해외 공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원가 하락이 제한 되었음. 하지만, 내년에는 환율도 올 해 대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영업이익 증가율 39% 예상

2023년 실적 기준 PER 14배에 불과: 동사의 2023년 실적기준 PER은 14배 수준으로 배터리 부품업체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임. 고객사가 하나라는 한계는 있으나, 미국까지 진입을 사실상 확정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100% 배터리 관련업체인 점을 고려해야. 기존 목표주가 8만원 유지

결산기(12월)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매출액(십억원)	280.1	366.3	481.9	587.2	740.4
영업이익(십억원)	26.7	31.1	31.3	43.5	65.2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18.5	31.0	37.6	40.2	62.2
당기순이익(십억원)	18.3	26.7	32.5	33.7	51.4
EPS(원)	2,697	3,483	4,183	4,335	6,618
증감률(%)	83.7	29.1	20.1	3.6	52.7
PER(배)	17.7	16.4	13.3	12.9	8.4
ROE(%)	15.8	12.7	10.6	10.0	13.7
PBR(배)	2.6	1.8	1.6	1.4	1.3
EV/EBITDA(배)	9.8	9.1	8.2	6.8	5.3

자료: 유진투자증권





솔루스첨단소재

단기 실적 부진 불구 앞선 현지화 긍정적

[\[출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

Investment Point

실적 악화 주원인 유럽법인, 최악의 상황은 지난 듯: 올 해 494억원 영업적자의 주원인은 동사 헝가리 전지박 공장 손실 때문임. 리콜 비용도 있었으나 전기료 급등이 손실의 가장 큰 원인. 전력비의 원가 비중이 과거 8~15%에서 3분기에는 30%까지 급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내년의 전기요금 레벨은 올 해보다 낮을 가능성 커. 고객사와 원가 상승분에 대한 판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턴어라운드 예상

북미 공장 투자도 경쟁사 대비 빨라: 동사는 캐나다 퀘벡에 북미향 전지박 공장을 건설 예정. 퀘벡은 수력 발전이 풍부해 전력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IRA 혜택을 누릴수 있어서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됨. EU와 미국의 역내 생산 우대 정책은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현지화에 앞선 솔루스첨단소재와 같은 업체들이 유리

최근 실적 및 이슈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시작 예상: 헝가리 전지박 공장 가동을 저하, 원가 상승으로 올 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지만, 내년부터는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전지박 부문 확정 수주 1.5조원, 추가 가능성 높은 계약까지 감안하면 3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양적 성장 가시성은 높아. 단가 협상 결과와 헝가리 전기요금 추이가 턴어라운드의 폭을 결정하게 될 것

OLED 소재 사업이 감안하면 저평가 국면: 동사의 OLED 소재사업은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비발광소재인 필러를 추가했고, QD잉크, TFE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OLED 사업가치는 우상향 중. 전지박 공장 정상화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뿐.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7만원 유지

결산기(12월)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매출액(십억원)	290.2	381.2	474.1	643.5	919.3
영업이익(십억원)	30.4	2.0	-49.4	14.8	40.8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2.3	0.6	-35.7	3.5	28.6
당기순이익(십억원)	-11.0	0.2	-44.2	4.1	22.6
EPS(원)	-347.7	374.0	-1,299.4	120.7	627.3
증감률(%)	적전	흑전	적전	흑전	419.7
PER(배)	-	230.1	-	358.3	69.0
ROE(%)	-5.1	4.0	-14.8	1.6	7.7
PBR(배)	6.5	11.3	7.3	7.2	6.6
EV/EBITDA(배)	32.6	84.4	386.3	28.6	21.0

자료: 유진투자증권



